

잘 나가던 KIA “스윙은 무리였나?”

2위 NC戰 4대15 대패...위닝시리즈 마감

선발도, 필승조도 ‘와르르’...장단 16안타 ‘못매’ 김도영·소크라테스 홈런포 위안...2게임차 유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NC 다이노스와의 3차전에서 대패하며, 주말 3연전을 위닝시리즈로 마감했다.

KIA는 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와의 홈 3차전에서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4-15로 역전패했다. 1위 KIA는 2위 NC와의 승차를 2게임차로 유지했다.

KIA는 앞서 NC전 두 경기에서 승리하며 위닝시리즈를 확보했지만, 3차전을 종전 끝에 개막 후 최다 점수차로 패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마운드는 5회까지만 9실점하며 난타당했다. 2홈런 포함 11안타를 맞았고, 볼넷도 8개를 헌납하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갔다.

KIA 선발투수 김건국이 2이닝 동안 5피안타 4볼넷 1삼진 4실점했고 필승조 불펜마저도 난조를 보였다. 5회 장형석이 연타석 홈런을 맞았고, 광도규도 2볼넷과 1피안타를 내주며 각각 2실점했다.

6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김사윤은 4

실점, 8회에 마운드를 이어받은 김현수는 2실점했다.

타선에서는 이우성이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분전했고, 김도영(1회)과 소크라테스(4회)도 솔로포를 가동했으나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KIA는 1회 2사 만루위기를 맞았으나 후속타자를 범타로 처리해 무실점으로 막았다.

위기를 넘긴 KIA가 1회말 김도영의 솔로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3회 NC에게 대거 4점을 내주며 끌려가기 시작했다.

3안타를 맞은 1사 만루 상황에서 연속 밀어내기 볼넷을 헌납하며 동점과 역전을 허용했다. 이어 계속된 1사 만루 위기에서 2타점 적시타를 맞고, 스코어는 1-4가 됐다.

4회에 볼넷과 징검다리 안타로 한점을 더 허용한 KIA가 홈런포로 반격에 나섰다.

4회말 선두 타자 소크라테스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리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했다.

그러나 곧바로 5회 연타석 솔로 홈런을 포함 3안타와 볼넷 2개를 묶어 4실점



21일 열린 NC와의 경기에서 1회말 선제 솔로포를 터뜨린 김도영(왼쪽)과 4회 솔로포를 터뜨린 소크라테스가 세리머니를 하며 베이스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하며, 점수차는 2-9까지 벌어졌다.

KIA가 다시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5회말 박찬호의 상대 포구 실책 출루와 김도영의 볼넷에 이어 2중 도루로 만든 무사 2,3루에서 이우성이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스코어를 4-9로 좁혔다.

그러나, KIA의 공격은 거기까지였다. KIA는 8회부터 대타 김태군과 이장진, 고종욱 등을 내보내며 분위기 반전에 안간힘을 썼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KIA는 쓰리런 홈런 등으로 6점을 더 헌납하며 4-15로 대패했다. /주홍철 기자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인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아안컵에 나선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회복훈련에 앞서 황선홍 감독의 지시를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황선홍호, 오늘 밤 10시 U-23 아시아안컵 조별리그 3차전

조 1위 자존심 운명의 한일戰

황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이 2일 오후 10시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4 AFC U-23 아시아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을 치른다.

아랍에미리트(UAE), 중국과 함께 B조에 묶인 두 팀 모두 조기에 8강행을 확정했다.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승점 6에 골득실 +3을 기록, B조 공동 선두로 올라선 상태다.

조별리그 통과가 확정됐으나 황선홍호가 승리를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많다. 패하면 B조 2위로 A조 1위를 차지한 개최국 카타르를 8강부터 상대하는 부담을 안는다.

골 득실과 다득점까지 같은 터라 한국, 일본이 비기면 대회 규정상 조 1위를 가르기 위해 연장전 없이 곧장 승부차기를 하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

카타르는 조별리그 2경기에서 2승을

쟁기는 등 홈팀답게 기세가 매섭다. 8강부터 부담스러운 상대와 마주하는 어려운 길을 피하려면 일본을 꺾고 당당히 B조 1위에 오르려 한다.

8강을 통과하면 황선홍호의 목표인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일단 4강 무대만 밟으면 파리행 티켓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번 대회 3위까지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공짜 받는다. 4위 팀은 2023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4위인 니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야 파리로 갈 수 있다.

황 감독은 지난 19일 중국을 2-0으로 꺾은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조직력을 다져온 팀이기 때문에 조직력의 형태를 보면 이 대회 참가국 중에는 ‘톱’이라며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선 서창완(가운데)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근대5종 서창완 월드컵 2차 개인전 우승

서창완(국군체육부대)이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서창완은 2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2024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사격+육상) 성적 합계 1천497점을 기록, 무타즈 모하메드(1천400점)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창완은 월드컵 개인전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메달권 진입은 2022년 6월 앙카라에서 열린 월드컵 파이널 은메달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달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올해 첫 대회에서 성승민(한국체대)과 혼성 계주 동메달을 합작한 데 이어 이번 시즌 월드컵에선 2개 대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입상으로 서창완은 파리 올림픽 출전권에 가까워졌다. /연합뉴스

“내년 장성에서 다시 만나요”...제63회 영광 전남체육대회 열전 마무리



지난 20일 영광 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 폐막식에서 명창환 전남도행정부지사,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대회 수상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시, 2년 만에 종합우승 탈환

종합 2위 영광군 성취상...모범 선수단상은 함평군 수영 구태완·육상 허정현, 대회 최우수선수상 수상

200만 전남도민이 스포츠로 하나된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가 지난 20일 영광 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뛰어나 위대한 영광, 열려라 희망찬 전남”이라는 대회 구호 아래 나흘간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순천시가 3만8천675점으로 2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개최지 영광군(3만5천700점)이 종합 2위, 여수시(3만5천625점), 광양시(3만3천675점), 목포시(3만2천575점), 신안군(3만950점), 영암군(29,875

점)이 뒤를 이었다.

수영종목에서 4관왕을 달성한 구태완(여수시)과 육상종목에서 3개의 대회신기록을 작성한 허정현(목포시)은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모범선수단상은 함평군, 모범종목단체상은 전남배드민턴협회, 장려상은 나주시·강진군·무안군이 각각 선정됐고 화합상은 장성군, 질서상은 고흥군, 우정상은 담양군이 수상했다.

지난 대회보다 종합점수와 순위가 향상된 시군에 수여하는 성취상은 10단계 순위를 끌어올린 영광군이 1위, 9

단계 상승한 곡성군이 2위, 6단계 상승한 진도군이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전남체전기간동안 대회 성공개회를 위해 봉사에 최선을 다한 영광스포츠클럽이 특별봉사상을 받았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대회 기간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은 전남체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는 5월에 전남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에도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는 장성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광주교통공사 이해경 아시아유도선수권 ‘銀’

파리올림픽 메달 ‘청신호’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해경(광주교통공사)이 2024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올림픽 메달 획득 청신호를 켜다.

이해경은 지난 20일 홍콩 킵트 스타홀에서 열린 여자 -48kg급 준결승에서 구오종잉(중국)을 상대로 안다리걸기 절반, 업어치기되지기 절반 합쳐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결승에선 바산쿠 바푸도지(몽골)에게 허리안아들리기 한판을 내줘 아쉽게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IJF 여자 -48kg급 올림픽 랭킹 9위로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을 일찌감치 확보한 이해경은 앞서 16강전에서 호록이(홍콩)에게 밧다리후리기 한판승, 8



2024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이해경. <광주교통공사 제공>

강전에서 틴바 예바 갈리야(카자흐스탄)에게 허벅다리후리기 절반승을 거두며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박희중 기자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

최은우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이겨내고 2년 연속 우승컵을 차지했다.

최은우는 21일 경남 김해시 가야 컨트리클럽 신어-낙동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208타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억6천200만원이다.

작년 이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최은우는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고, 2013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로 기록됐다.

최은우와 챔피언즈에서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였던 정윤지는 신인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이동은과 함께 1타 뒤진 공동 2위(7언더파 209타)에 올랐다.

역시 챔피언즈에서 경쟁한 박현경은 함께 6언더파 210타를 쳐 조해림, 이정민과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한국, 프리미어12B조 편성...일본·대만·쿠바와 대결

한국야구가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B조에 편성돼 일본, 대만 등과 경쟁한다.

WBSC는 지난 18일 2024 프리미어12 조 편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프리미어12에는 WBSC 랭킹 상위 12

팀이 출전한다.

B조에는 한국(4위), 일본(1위), 대만(5위), 쿠바(8위), 도미니카공화국(9위), 호주(11위) 6개국이 속했다.

일본과 호주가 올해 11월13일 일본 나고야에서 B조 개막전을 벌이지만,

남은 B조 예선 경기는 11월14-18일에 대만 타이베이돔과 헨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WBSC는 “상세한 경기 일정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A조에 속한 멕시코(2위), 미국(3

위), 베네수엘라(6위), 네덜란드(7위), 파나마(10위), 푸에르토리코(12위)는 11월10-14일 멕시코에서 예선 경기를 펼친다.

A조와 B조에서 1, 2위를 차지한 4개국은 슈퍼 라운드에 진출한다. 슈퍼라운드에는 11월21-23일에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다. 11월24일 도쿄돔에서 프리미어12 우승팀이 가려진다. /연합뉴스